

북한배경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통문화론을 중심으로*

A Qualitative Case Study of the School Experiences of Adolescents with North Korean Backgrounds: Focusing on Transculturalism

전주람 (Jooram Jun)**

ABSTRACT

This study explored the school experiences of adolescents with North Korean backgrounds and examined how these experiences shaped their understanding of and adaptation to South Korean society from the perspective of transculturalism. The participants were five adolescents from North Korean backgrounds in their late teens and early twenties who had attended schools in both North and South Korea. Data were collected through semi-structured, in-depth interviews and analyzed using a qualitative case study approach. The findings revealed four overarching categories and fourteen subcategories of school experiences, including recognizing the differences between education aimed at individual development and education oriented toward maintaining the political system; understanding the role of South Korean schools in facilitating social integration and upward mobility; experiencing challenges in school adjustment resulting from differences in educational and career guidance system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nd developing pragmatic academic and career strategies. Through these school experiences, the participants came to understand the values and norms of South Korean society while reconstructing their identities by integrating their existing cultural experiences with new cultural elements. From the perspective of Christian anthropology, this process reflects the inherent dignity and relational nature of human beings, suggesting that the experiences of adolescents with North Korean backgrounds can be understood not merely as a process of adaptation but also as a journey of meaning-making and

* 2026년 8월 4일 접수, 9월 2일 최종수정, 9월 3일 게재확정.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24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4S1A5B5A17034597)

** 서울시립대학교 교직부(Department of Teacher Education, University of Seoul) 강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 ramidream@hanmail.net

identity formation. This study offers practical implications for supporting the school adjustment of adolescents with North Korean backgrounds and underscores the need for an integrated, human-centered approach.

Key words: adolescents with North Korean backgrounds, school experiences, transculturalism, christian anthropology, qualitative case study

I. 서론

2000년대 이후 한국 사회의 북한이주민은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2025년 12월 말 입국자 기준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주민은 34,537명에 이른다(통일부, 2026). 2022년 4월 기준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탈북 학생 수는 2,061명으로 집계되었다(김하연, 2023). 북한이주민의 증가는 2009년 이후 정부 차원의 북한이탈주민 지원기관과 연구기관의 설립으로 이어졌으며, 관련 연구 역시 정치·통일·외교·안보 중심에서 경제, 사회, 문화 및 일상생활 등으로 확대되어 왔다(고유환, 2015). 특히 북한이주민의 주요 특징 가운데 하나는 2015년 이후 북한 출생자보다 중국 등 제3국 출생자가 더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 정착하고 있는 북한배경 청소년에 관한 기초자료와 이들의 구체적인 삶의 경험을 다룬 연구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북한배경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맥락의 변화에 주목하고, 이들이 한국사회에서 경험하는 구체적인 삶의 과정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북한배경 청소년은 과거 언론과 연구에서 주로 다루어 온 가족동반 탈북청소년뿐만 아니라, 나홀로 탈북한 무연고 청소년,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 그리고 한국 정착 이후 출생한 자녀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노은희, 2021). 이러한 개념적 범위는 북한배경 청소년을 단순히 북한에서 태어나 한국으로 이주한 청소년으로 한정하기보다, 북한·제3국·한국이라는 서로 다른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성장하고 있는 청소년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들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탈북 및 이주 경험 자체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에서 형성되는 일상적 관계와 문화적 경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존 연구는 북한이주민이 남한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신체적·심리적·경제적 어려움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및 정책의 변화 등 거시적 차원의 논의를 중심으로 축적되어 왔다(권수현, 2011 ; 정은미, 2014 ; 최지영 외, 2021). 물론 이러한 연구는 북한이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북한이주민이 실제 생활세계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고, 그러한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며, 변화하는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구성해 가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탐색이 필요하다(정진아, 2013 ; 정은미, 2014 ; 최지영 외, 2021). 특히 청소년에게 학교는 단순히 학업이 이루어지는 교육기관을 넘어,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며 교사 및 또래와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의 규범과 문화를 경험하는 중요한 일상적 삶의 공간이다. 따라서 북한배경 청소년의 학교생활을 살펴보는 것은 이들이 한국사회를 어떻게 경험하고 이해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경험이 자신의 정체성과 관계, 삶의 방향을 형성하는 데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북한배경 청소년들은 탈북과 이주 과정에서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거나 가족의 해체를 경험하는 경우가 있으며, 학업 공백과 남북한의 교육 및 문화 차이, 정체성의 혼란 등으로 사회문화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들은 한국으로 이주한 이후 학교에서 중요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며, 교사 및 또래관계의 수준과 정도는 이들의 행복과도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보라, 2017). 또한 2020년 기준 탈북청소년의 학업중단율은 2.9%로 일반학생의 1%보다 높으며, 교육과정과 내용의 차이, 탈북과정에서의 학습 공백 등으로 교과 수업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도 많다. 더불어 한국사회의 낯선 문화와 또래관계의 어려움, 편견과 차별, 혐오 등의 문제를 경험하기도 한다(남신동, 2022). 그러나 학교생활은 이러한 어려움만을 경험하는 공간은 아니다. 학교는 북한배경 청소년들이 한국사회를 이해하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며, 서로 다른 문화적 규범과 가치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탐색하고 삶의 방향을 구성해 가는 중요한 경험의 장이기도 하다(양계민 외, 2022 ; 오혜정·손병덕, 2020 ; 장선아·고정훈, 2021).

기존 연구들은 북한배경 청소년의 학교적응에서 나타나는 어려움과 교육지원의 필요성을 밝히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였지만, 이들이 학교생활에서 경험하는 문화적 차이와 관계의 형성, 갈등과 조정, 가치와 규범에 대한 선택,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과 미래에 대한 의미 부여의 과정을 문화적 주체의 관점에서 해석한 연구는 충분하지 않다. 특히 북한배경 청소년을 한국사회에 적응해야 하는 대상으로만 바라볼 경우, 이들이 서로 다른 문화적 경험을 비교하고 선택하며 자신의 방식으로 의미를 재구성하는 능동적인 주체라는 측면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배경 청소년의 학교생활을 단순한 적응의 과정이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적 맥락이 만나고 교류하며 새로운 의미가 형성되고 재구성되는 생활세계로 바라보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통문화론(transculturalism)은 북한배경 청소년의 학교생활 경험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 통문화론은 문화를 고정되고 경계가 분명한 독립적인 체계로 보기보다, 서로 다른 문화가 접촉하고 교류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문화적 경계가 재구성되고 새로운 의미와 실천이 형성되는 과정으로 이해한다. 이는 북한배경 청소년을 북한문화와 한국문화 중 어느 하나에 속하거나 한 문화에 일방적으로 동화되어야 하는 존재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벗어나게 한다. 북한배경 청소년들은 자신의 성장 배경과 이주 경험, 가족관계, 또래관계 및 학교생활을 통해 서로 다른 문화적 경험을 접하고, 이를 비교하고 선택하며 자신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재구성한다. 따라서 이들의 학교생활은 단순히 한국의 교육문화에 적응해 가는 과정이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적 경험이 만나고 협상되며 새로운 의미가 형성되는 통문화적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학교는 이러한 통문화적 경험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중요한 생활세계이다. 북한배경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교사와 또래를 만나고, 한국의 교육과정과 학교문화, 언어와 의사소통 방식, 또래문화와 사회적 규

범 등을 경험한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익숙하게 경험해 온 문화적 방식과 한국사회의 문화적 규범 사이에서 차이를 경험하거나 갈등을 겪을 수 있으며, 때로는 기존의 방식을 유지하고 때로는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이거나 두 가지를 결합하여 자신의 방식으로 재구성하기도 한다. 또한 교사 및 또래와의 관계를 형성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타인과 어떠한 관계를 맺을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학교와 사회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해 탐색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은 단순히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차원을 넘어, 서로 다른 문화적 경험을 해석하고 자신의 가치와 정체성을 형성하며 미래의 삶을 구상하는 과정과 연결된다. 따라서 북한배경 청소년의 학교생활을 통문화론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은 이들이 학교에서 무엇을 경험하는지를 확인하는데 그치지 않고, 서로 다른 문화적 맥락 속에서 자신의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고 선택하며 새로운 의미를 구성해 가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배경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고, 학교라는 일상적 삶의 공간에서 이들이 한국의 교육문화와 사회적 경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며 자신의 삶을 구성해 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통문화론(transculturalism)을 주요 이론적 분석틀로 활용하여 북한배경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서 서로 다른 문화적 경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조정하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경험과 삶의 의미를 어떻게 재구성해 가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기독교 인간학의 관점에서 이러한 경험이 지니는 인간학적 의미에 주목하여, 북한배경 청소년을 단순한 사회적응의 대상이 아니라 고유한 존엄성과 관계성을 지닌 주체적 존재로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북한배경 청소년의 학교생활을 ‘적응’이라는 단일한 관점에서 이해하는 데서 벗어나, 서로 다른 문화적 경험이 교차하고 조정되는 과정 속에서 관계를 형성하고 자신의 삶의 의미와 방향을 구성해 가는 과정으로 이해하기 위한 학문적·실천적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선행 연구

북한배경 청소년들은 남한 사회로의 진입 이전 상이한 교육체제를 경험하였고, 이는 북한배경 청소년들이 남한의 학교문화와 교육방식을 경험하고 해석하는 데 중요한 배경이 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한만길 외(2001)은 북한배경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북한 주민들의 교육의 실상을 상세히 밝히고자 하였다. 북한의 교육은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부적으로, 북한 교육은 공산주의적이고, 주체형의 새로운 혁명적 인간을 육성하고자 하며, 개인보다는 국가나 당을 위하는 집단주의적 가치관을 함양하는 데 목표를 둔다.

북한에서는 이러한 교육목표의 달성을 위해 혁명활동 등 체제 이념을 강조하는 교과활동을 중시하며, 국어·한문 등의 교과도 사상교육을 위한 수단이 된다. 북한배경 주민들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었는데, 성인 응답자의 73.7%(60명), 학생 응답자의 75%(12명)이 북한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 고취를 가장 주요한 교육 목적으로 인식하였다. 반면 개인의 소질계발을 학교의 주요 목표로 인식한 응답자는 14.5%(11명), 18.8%(3명)에 불과하였다. 이는 당시 북한의 교육이 개인의 자율성과 다양성보다는 집단적 규범과 이념교육을 상대적으로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교육환경에서는 학생들이 개인의 흥미와 재능을 탐색하고 개인의 가치와 적성에 기반하여 진로를 설계하는 데 일정한 제약이 있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더불어 북한의 학교교육은 경제난과 교육환경의 제약으로 인해 교육의 본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교육시설에 전기나 냉난방 시설의 공급이 미비하며, 교육 및 실습용 기자재가 부족하고, 교육예산이 충분히 지원되지 못해 일부를 자체적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입학자격이 거래되거나 입시비리가 행해지는 사례로도 나타나며, 이는 북한 사회에서도 남한과 마찬가지로 높은 학력이 사회적 지위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됨을 보여준다. 부를 소유한 계층은 자녀를 상급 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한 사회적 자본이 갖춰져 있는 것에 비해 그렇지 못한 가정에서는 자녀 교육을 포기하거나 타협하는 것으로 드러난다(오주리, 이수연, 2010; 조정아, 2008).

북한배경 청소년들은 남한 사회에 이주한 이후 한국의 교육제도에 편입되어 북한과는 다른 학교문화와 교육방식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선행연구에서는 이들이 학교 및 문화적응, 대인관계, 진로·진학 등의 영역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 북한 및 제3국에서의 장기체류로 인한 교육공백과 기초학습 부족, 북한과 남한의 교육과정 및 수업방식의 차이는 학업과 학교생활에서 심리적 혼란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성경, 2018 ; 김애진·정원철, 2011 ; 백인옥, 2020 ; 이수연, 2008). 특히 이들은 남한 학생들과의 학력 차이로 수학과 영어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역사의 경우 완전히 다른 내용을 접함에 따라 정체감의 혼란을 경험한다. 더불어 수업방식의 이질성으로 인해 학습 초기에 막막함을 호소하는데, 북한에서 이론 주입식 형태로 폐쇄적인 수업을 경험했던 것에 비해, 한국에서는 참여식 수업이나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토론식 수업이 주로 진행된다. 북한배경 청소년들은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기반하여 하고 싶은 것을 탐색하고 결정했던 경험이 부족하여 수업방식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학교생활뿐만 아니라 남한의 일상적인 문화와 사회적 규범을 이해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나타난다. 남한 학생들이 사용하는 외래어나 은어, 온라인 및 매체 용어, 경쟁적이고 학벌주의적인 교육문화, 직설적 표현과 다른 간접적 의사소통 방식 등에 익숙하지 않아 문화적 이질감을 경험하기도 한

다. 또한 북한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자신의 출신 배경을 밝히지 못하거나, 이를 공개한 이후 차별과 무시를 경험하는 경우도 보고되었다(김애진·정원철, 2011 ; 백인옥, 2020 ; 이수연, 2008). 더불어 북한배경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충분히 가시화되지 못함에 따라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현실적인 진로상담이 부족하고, 교사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교육과 연수 역시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이수연, 2008).

이처럼 기존 연구는 북한배경 청소년의 ‘어려움’과 ‘대처전략’을 각각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이러한 어려움과 대처전략이 남북한의 상이한 교육문화가 만나는 과정에서 어떻게 발생하고, 청소년의 선택을 통해 어떻게 재구성되는지는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 최근에는 이러한 관점을 확장하여 북한배경 청소년들이 남한 사회의 영향을 일방적으로 받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주체적인 행위를 통해 자신만의 대처전략을 구성하고 실행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오주리와 이수연(2008)은 대구·경북 지역에 거주하는 북한배경 청소년 14명의 적응과정과 대처경험을 탐색하였으며, ‘낙관성’, ‘문화적 균형잡기’, ‘자원 활용하기’의 세 범주를 도출하였다. 북한배경 청소년들은 남한사회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태도로 문제를 재해석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또한 남한사회에 편입하기 위해 동화 전략을 선택하면서도, 학교생활에서 자신감을 얻은 이후 자신의 출신 배경을 드러내거나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또래문화를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울러 자신에게 필요한 자원을 탐색하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면서 지지체계를 구축하거나 활용하였다. 김성경(2018)은 북한배경 청소년들의 학교적응 과정을 분석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상호작용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전략은 ‘또래 모방하기’, ‘학습향상 노력하기’, ‘진로탐색 집중하기’로 구분되었다. 북한배경 청소년들은 또래문화를 학습하고 모방함으로써 또래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고자 하였으며, 학습자원과 다양한 학습방법을 활용하여 학업성취를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대학 특례입학제도와 같은 입시정보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진로를 개척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북한배경 청소년들이 다양한 삶의 맥락에서 자신의 상황을 판단하고 필요한 자원을 선택하며, 자신만의 대처전략을 구성하는 능동적인 존재임을 보여준다. 이는 북한배경 청소년을 남한 문화에 일방적으로 동화되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적 환경과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가치와 행동방식을 조정하고 새로운 의미를 구성하는 문화적 행위자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북한배경 청소년의 ‘어려움’과 ‘대처전략’을 각각 밝혀냈다. 그러나 그 어려움과 대처전략이 남북한의 상이한 교육문화가 만나는 과정에서 어떻게 발생하고, 청소년의 선택을 통해 어떻게 재구성되는지는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 특히 또래관계, 교사관계, 학습문화, 학교규범, 진로인식 등 학교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 서로 다른 문화적 경험이 어떠한 방식

으로 충돌하고 조정되며,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과 진로를 어떻게 재구성하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탐색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배경 청소년의 학교생활을 단순한 ‘적응’의 결과나 대처전략의 집합으로 바라보기보다, 서로 다른 문화와 교육경험이 접촉하고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기존의 경험이 변화하고 새로운 문화적 요소가 선택적으로 수용되며 새로운 의미와 삶의 방식이 구성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페르난도 오르티스(Fernando Ortiz)의 통문화론(transculturalism)을 주요 분석틀로 활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통문화론의 관점에서 북한배경 청소년들이 남북한의 상이한 교육문화 속에서 무엇을 수용하고, 무엇을 조정하거나 거부하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새로운 의미와 행동방식을 구성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한편 이러한 문화적 재구성의 과정을 경험하고 선택하는 주체인 북한배경 청소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기독교 인간학의 관점을 참고하고자 한다. 기독교 인간학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을 지닌 존엄한 존재로 이해하며, 관계 속에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선택하며 책임지는 존재로 바라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문화론을 중심으로 북한배경 청소년의 학교생활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접촉과 변화, 선택과 재구성의 과정을 분석하고, 기독교 인간학을 통해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청소년의 주체성과 존엄성을 해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은 북한배경 청소년을 단순한 적응의 대상이 아니라 문화적 경험을 능동적으로 해석하고 선택하며 자신의 삶과 진로를 재구성하는 주체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III.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북한배경 청소년들의 남북한 학교생활 경험을 통해 학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인식을 탐색하기 위해 질적 사례연구(qualitative case study) 방법을 적용하였다. 질적 사례연구는 특정 현상을 그 현상이 놓인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심층적으로 탐색하고, 복합적인 사회현상의 의미와 특성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적합한 연구설계이다(Yin, 2012). 본 연구에서는 ‘북한배경 청소년의 남북한 학교생활 경험’을 하나의 사례군으로 설정하고, 연구참여자 5명을 하위 사례로 구성하여 각 참여자의 경험을 개별적으로 탐색한 후 사례 간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사례 경계는 시간적·내용적·맥락적 측면에서 설정하였다. 시간적 범위는 연구참여자

들의 북한에서의 학교생활 경험과 남한 입국 이후의 학교생활 경험으로 한정하였다. 내용적 범위는 남북한 학교의 교육환경, 학습경험, 교사 및 또래관계, 학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인식, 학업 및 진로 경험으로 설정하였다. 맥락적 범위는 북한에서 형성된 학교생활 경험과 남한 정착 이후 경험하는 학교생활을 비교하고 그 차이와 의미를 탐색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배경 청소년의 모든 삶의 경험을 포괄하기보다, 남북한의 서로 다른 교육문화 속에서 형성된 학교생활 경험과 그 의미에 연구의 범위를 한정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세평적 사례선택(reputational case selection)과 눈덩이표집(snowball sampling)을 활용하여 모집하였다. 북한배경 청소년과 라포를 형성하고 있는 현장 전문가의 추천을 받은 후, 기존 연구참여자의 소개를 통해 추가 참여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표집을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북한배경 청소년으로, 남한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이며 남북한 학교생활 경험에 대해 자신의 경험과 인식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5명의 북한배경 청소년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자료수집은 2024년 5월부터 7월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되었으며, 연구참여자별로 총 2회의 심층면담(in-depth interview)을 실시하였다. 면담은 반구조화된 면접(semi-structured interview)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1차 면담에서는 인구사회학적 배경, 생애사와 탈북 및 정착 과정, 가족 배경, 남북한 학교생활 전반을 탐색하였다. 2차 면담에서는 북한과 남한의 학교생활 경험, 교사 및 또래관계, 학습 및 진로 경험, 학교 적응 과정에서 경험한 어려움과 대처 및 지원 요인 등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심층 탐색을 실시하였다.

자료분석은 질적 사례연구의 연구설계에 따라 수집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Braun과 Clarke(2006)의 주제분석(thematic analysis)을 활용하였다. 먼저 각 연구참여자의 면담자료를 반복적으로 검토하면서 의미 있는 진술을 추출하고 초기 코드를 부여하여 개별 참여자의 경험과 맥락을 파악하였다. 이후 각 참여자의 경험을 개별적으로 분석하는 사례 내 분석(within-case analysis)을 실시하고, 5명의 참여자 사례를 상호 비교하여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경험과 인식뿐만 아니라 사례별 차이와 특수성을 검토하는 사례 간 분석(cross-cas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개별 사례를 관통하여 나타나는 의미와 패턴을 확인하였다.

이후 사례 내·사례 간 분석을 통해 도출된 코드와 의미 있는 진술을 내용적 유사성과 개념적 관련성을 기준으로 묶어 하위범주와 상위범주를 구성하고, 범주 간 관계와 전체 자료에 대한 설명력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였다. 이어 각 범주에 담긴 의미를 통합하여 최종 주제와 하위주제를 도출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 질적 사례연구는 북한배경 청소년의 남북한 학교생활 경험을 구체적인 개인적·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심층적으로 탐색하고 사례 간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기 위한 연구설계로

활용하였으며, 주제분석은 사례 내·사례 간 분석을 통해 수집된 면담자료의 의미와 패턴을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주제화하기 위한 자료분석방법으로 활용하였다.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가족학 전공 교수 1인의 동료검토(peer debriefing)를 실시하여 분석 결과와 해석의 적절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연구자의 선이해와 이론적 가정이 자료 해석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연구 전 과정에서 연구 메모를 작성하고 성찰적으로 검토하였다. 최종적으로 도출된 결과는 통문화론(transculturalism)을 분석적 관점으로 활용하여 서로 다른 문화적·교육적 경험의 접촉, 선택, 변형 및 재구성의 과정으로 분석하고, 기독교 인간학의 관점에서 참여자들의 경험과 선택에 나타난 의미를 해석하였다.

<표 1> 연구절차 및 방법

구분	내용	세부 설명
연구 설계	질적 사례연구	북한배경 청소년의 남북한 학교생활 경험과 학교의 역할기능에 대한 인식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질적 사례연구 방법을 적용함
연구참여자	북한배경 청소년 5명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15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으로, 남한 거주 기간 1년 이상이며 남북한 학교생활 경험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참여자를 선정함
표집방법	세평적 사례선택 및 눈덩이표집	현장 전문가의 추천을 받은 후 참여자가 다른 참여자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모집함
연구시기	2024년 5월~7월	약 3개월 동안 자료수집 및 면담을 진행함
1차 면담 내용	인구사회학적 변인, 학교생활 탐색	탈북 동기, 가족 배경, 남북한 학교생활 전반, 학교 적응 경험 등을 탐색함
2차 면담 내용	학교생활 경험 심층 탐색	교과·비교과 활동, 친구관계, 학교 적응의 어려움과 지원 요인, 학습 및 진로 경험 등을 심층적으로 탐색함
자료 분석	주제분석	Braun & Clarke (2006)의 주제분석 절차를 적용하여 의미 있는 진술 추출, 개념화, 범주화 및 주제 도출을 수행함
연구의 신뢰성 확보	전문가 검토 및 연구자 협의	연구자 간 지속적인 검토와 협의를 실시하고, 가족학 교수 1인의 검토를 통해 분석 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함

2.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서울에 거주 중인 북한배경 청소년 5명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는 남북한 학교생활 경험에 대해 자신의 인식과 경험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였으며, 남한 사회와 학교생활에 대한 최소한의 적응 경험을 고려하여 남한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 선정 기준을 설정하였다. 참여자 모

집은 북한배경 청소년과 라포를 형성하고 있는 현장 전문가의 추천을 받는 세평적 사례선택 방식과, 기존 참여자의 소개를 통해 추가 참여자를 모집하는 눈덩이표집 방식을 활용하였다. 표집 과정에서 고향, 성별, 학력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사전에 제한하지 않았으나, 최종적으로 선정된 연구참여자 5명은 모두 북한의 혜산 출신이었다.

<표 2> 연구참여자들의 인구사회학적 변인

연번	연령	고향	현재 하는 일	탈북연도	가족원수	희망직업
1	21세	혜산	대안학교 재학	2019	언니	미정
2	16세	혜산	일반고 재학	2019	어머니	미정
3	22세	혜산	대학 재학	2014	부모	미정
4	19세	혜산	대안학교 재학	2017	어머니	헤어디자이너
5	21세	혜산	대학 재학	2018	부모	교수

참여자 1은 2019년 직행으로 한국에 도착했다. 2015년 금전적으로 여유는 있었지만 토대는 좋지 못한 집안 환경 탓에, 참여자의 언니는 ‘내가 여기 있어 봤자 시집을 가도 온전히 못 갈 것 같고, 또 엄마랑 사이도 안 좋다’고 생각했었다고 했다. 이후 참여자 1은 언니가 이끌어준 덕에 한국에 잘 도착할 수 있었다. 참여자 1의 부모님은 밀수와 금장사를 했었으므로 동네에서 소문난 부자였다. 하지만 부모님 사이에는 늘 갈등과 폭력이 잦았고, 참여자 1이 13살이 되던 때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폭력은 끝이 났다. 이후 참여자 1의 어머니는 운이 나쁘게도 교화소를 끌려들어가는 일이 생겼고, 더 이상 자매는 북한에서 희망이 없다고 판단했다. 참여자 1은 북한 생활을 정리하면서 아파트를 팔아 새 핸드폰을 사거나 자신이 입고 싶었던 옷을 엄청 많이 사서 입어봤다고 했다. 한국에서의 적응은 생각보다 매우 어려웠고, 약 1년 간 폭식과 심각하게 불어난 체중으로 인해 우울과 고립된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뒤돌아보면 우울했던 그 시기가 자신에게 여유를 줬던 시기라고 재해석하며,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하자’고 되뇌이곤 했다. 그 후 어렵게 대안학교에 발을 디게 됐고, 이후 조금씩 일상을 찾아나갈 수 있었다.

참여자 2는 2019년에 한국에 왔다. 그녀의 친어머니가 먼저 한국에 오셨고, 북한에서는 양어머니와 함께 거주했었다. 양어머니는 참여자 2에게 ‘좋은 나라’에 가서 살라고 하셨다고 한다. 참여자 2는 자신이 북한에서 온갖 고생을 했다고 하며, 무엇보다 학교를 다니지 못하며 돈을 벌어야만 했던 시간을 떠올렸다. ‘팔 수 있는 건 다 팔아봤던 거 같아요. 거머리까지. 늘 학교에 다니고 싶었어요. 늘 외로웠고요. 한국에 오니까 엄마가 있어 좋은데 여전히 공부밖에 관심이 없어요. 한국 엄마들

처럼 무슨 정서 코칭이다 뭐다 그런 거 전혀 없죠. 혼자 다 해나가야 하는 분위기인데요.’ 그는 대학에 반드시 입학하겠다고 다짐하며, 대학에 입학하면 스킨스쿠버를 해보고 싶다고 했다. 또한 여러 해외에 다녀보고 싶고, 대학에 가면 동아리에 들어가 여러 경험을 쌓기를 원했다. 그는 자신이 한국에 오자마자 일반학교에 들어가서 적응하기 너무 힘들었다고 회상하며 한국 스타일의 공부를 따라 잡느라 지쳐간다고 한다

참여자 3은 서울 소재 A대학교 유아교육과에 재학 중이며, 자유분방하며 운동을 즐긴다. 다음 학기에는 휴학하고 공부에 매진할 예정이다. 작은 키에 왜소한 체구를 지녔으며, 외모 콤플렉스를 숨기기 위해 옷에 매우 신경을 쓴다고 했다. 양쪽 귀의 여러 피어싱과 입술 아래 피어싱, 칼라렌즈가 그녀를 잘 표현해 준다.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은’ 의욕이 높고, 원어민만큼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 하길 꿈꾼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일단 언어능력이 필요하다고 했고, 영어유치원에 취입하거나 해외에서 1-2년간 어떤 일을 경험해보고 싶기도 하다. 자신의 전공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찾아본다고 했다. 그녀에게서 긍정의 에너지와 포부가 느껴진다.

참여자 4는 2017년 입남하여 대안학교에 재학중이다.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에 열흘 정도 있다가 라오스를 거쳐서 태국으로 왔다고 했다. 엄마가 편찮으셔서 브로커 비용은 내지 않고 온 좋게 한국에 도착했다. ‘오는 길이 어렵지 않았냐’는 연구자의 질문에 참여자는 ‘지하공작 느낌이 들어 힘든데 재밌다’고 답했다. 참여자 4는 처음에 일반 학교에 가고 싶었는데 지금은 대안학교에 온 걸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대안학교는 약간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간다고 생각했지만, 일반 학교에 가서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보니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참여자 4는 의식적으로 ‘웃자, 웃자’ 생각하며 산다고 했다. 별명은 코뿔소로, 학교 친구들이 붙여준 별명이다. 의식적으로 욕도 안 하고 웃으면서 살자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참여자 5는 21세 여성으로 2018년 탈북하였다. 가족 모두 함께 한국으로 이동하였고, 참여자 5의 오빠는 결혼하여 분가하였다. 가족은 입남 초기부터 2023년에 이르기까지 브로커 비용을 갚는 데 주력하였고, 브로커 비용은 약 2천~3천만 원이었다. 빚에 대한 부담으로 그녀는 편의점, 카페 등 아르바이트로 가족들을 보조했고, 가족들이 함께 여행을 가거나 외식하는 등의 여가생활은 거의 없었다. 가족들은 모두 불필요한 소비를 최소화하며 생활하였다. 그러한 노력 탓에, 지금 참여자 5의 가족은 임대아파트에서 벗어나 깨끗한 신축 아파트로 이사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의 성격은 활발하고 진취적인 편이다. 영어공부,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물론, 간호학 전공을 활용할 수 있는 선교와 해외여행 등 무엇이든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를 즐기는 편이다. 현재 남한출생 남자친구를 만나며 즐거운 연애생활도 즐기고 있다. 그는 자유롭게 여행을 다니며 일할 수 있는 직업으로 교수를 꿈꾸며, 미래 간호학 교수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3. 자료 수집 및 분석

자료수집은 2회기의 반구조화 심층면담으로 이루어졌다. 1차 면담은 2024년 5-6월에 실시하였으며, 1인당 평균 90-120분이 소요되었다. 1차 면담에서는 인구사회학적 배경, 탈북 및 정착 과정, 가족 배경, 북한과 남한에서의 학교생활 경험 등을 개인적·사회문화적 맥락을 중심으로 탐색하였다. 2차 면담은 1차 면담 종료 후 약 3-4주의 간격을 두고 2024년 6-7월에 진행하였으며, 1인당 평균 60-90분이 소요되었다. 2차 면담에서는 북한과 남한의 학교생활 경험, 교사 및 또래관계, 학습 및 진로 경험, 학교 적응 과정에서 경험한 어려움과 대처 등을 중심으로 1차 면담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은 내용을 추가적으로 탐색하였다. 모든 면담은 참여자의 응답 흐름에 따라 질문의 순서와 내용을 유연하게 조정하여 진행하였다.

자료분석은 Braun과 Clarke(2006)의 주제분석(thematic analysis) 절차를 참고하여 수행하였다. 분석 과정은 원자료의 반복적인 검토와 의미 있는 진술의 추출, 개념화 및 범주화, 주제의 구성 및 정의, 연구자 간 검토와 가족학 교수 1인의 검토를 통한 분석 결과의 재검토와 타당성 확보의 과정으로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배경 청소년의 학교생활 경험에 내재된 의미와 학교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인식을 체계적으로 도출하고자 하였다. 최종적으로 도출된 범주는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관점인 통문화론에 따라 남북한의 상이한 교육문화가 접촉하고 변화·재구성되는 과정과 그 의미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기독교 인간학은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이해하는 데 참고적 관점으로 활용하여,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에 기초한 인간의 존엄성과 주체성, 관계성 및 회복 가능성에 관한 의미를 보완적으로 살펴보았다.

4. 연구의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의 권리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연구의 윤리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 수행 전반에 걸쳐 연구윤리 원칙을 준수하였다. 연구 참여에 앞서 모든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절차, 면담 내용의 활용, 녹음 여부, 비밀보장 및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연구참여에 대한 자발적인 서면 동의를 받았다. 또한 연구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며, 참여자는 연구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면담을 중단하거나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하였다.

연구참여자 중 미성년자인 16세 참여자의 경우에는 연구참여자 본인의 자발적인 참여 의사를 확인하는 동시에, 부모에게 연구의 목적과 절차, 면담 내용의 활용 및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전화 통화를 통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았다. 모든 면담은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하였으

며, 녹음자료는 면담 종료 후 전사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전사 및 연구결과 작성 과정에서는 참여자의 실명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하거나 변경하여 익명성을 확보하였다. 면담 참여에 대해서는 소정의 교통비를 지급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 당시 별도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를 신청하거나 승인을 받지 않았다. 이에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의 개인정보와 면담자료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자료의 관리와 보안에 주의를 기울였으며, 연구결과를 제시하는 과정에서도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 일부 정보를 변경하거나 비식별화하여 제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본 연구는 북한배경 청소년들이 학교생활 경험을 토대로 남한 사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적응해나가는지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북한배경 청소년들의 남한 학교생활 경험은 ‘개인의 성장 지원과 체제 유지 간의 간극 인식’, ‘사회 진입과 계층 이동을 위한 남한 학교의 기능 자각’, ‘남북한 학교의 학습과 진로지원 방식 차이로 인한 적응 어려움’, ‘현실에 기반한 학업 및 진로 전략’으로 상위범주 4개, 하위범주 14개가 도출되었다.

<표 3> 연구참여자들이 인식하는 학교생활 경험의 범주 및 주요 내용

상위범주	하위범주	주요 내용
남북한 학교의 교육환경과 학생 성장 지원 방식의 차이 인식	학생의 학습을 지원하는 학교환경 조성의 차이	남한 학교는 청소, 수도시설, 급식, 컴퓨터 등 학생의 학습을 지원하는 환경이 갖추어져 있는 반면, 북한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시설 수리비를 부담하거나 직접 청소하고 물을 길어오는 등 학교 시설의 미비함을 보완하는 데 동원됨.
	개인의 자율적 성장과 사회 정서적 발달 지원의 차이	남한 학교는 학생의 개인적 성장과 사회정서적 발달에 관심을 두고 학생 간 갈등을 교사가 중재·지도하는 반면, 북한 학교는 충성심과 애국심을 강조하고 체벌 등을 통해 학생을 통제하며 개인의 정서·사회적 발달에 대한 지원이 부족함.
	창의성과 다양성을 허용하는 교육환경의 차이	남한 학교는 복장과 의사표현, 예술적 표현 등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다양한 표현을 허용하는 반면, 북한 학교는 획일적인 문화와 규범적 표현을 강조하여 학생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제한됨.

사회진입을 위한 남한 학교의 기능 인식	계층 이동의 기회로서 학교의 기능 인식	북한과 달리 남한 사회에서는 출신 배경과 관계없이 노력에 따라 일정 부분 성과를 얻을 수 있으며, 학교교육과 대학 진학이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중요한 경로라고 인식함.
	남한 사회의 문화적 규범을 학습하는 사회화 공간으로서의 학교	학교를 '작은 사회'로 인식하며, 일반학교나 대안학교에서 남한 학생들과 어울리고 한국의 문화와 생활방식을 경험함으로써 향후 사회생활을 준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함.
	안정적 생계와 취업을 위한 대학교육의 중요성 인식	남한에서는 공부와 대학 진학이 취업과 안정적인 생계 유지에 중요한 자원이라고 인식하며, 구체적인 진로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도 대학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함.
남북한 학교문화와 교육방식의 차이로 인한 적응 어려움	입시 중심 교육환경에서 경험하는 학업 부담	북한보다 대학입시와 학업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남한의 교육환경에서 부담과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교과목 및 학업 수준의 차이로 남한 학생들과의 학업 격차를 따라가는데 어려움을 경험함.
	학습활동의 규범과 방식 차이에서 오는 혼란	학교폭력에 대한 규범, 학생 간 갈등에 대한 교사의 개입, 법과 규칙을 통한 문제 해결 방식, 컴퓨터를 활용한 과제 등 북한과 다른 학교의 규범과 학습방식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혼란을 경험함.
	자율적 선택과 자기주도적 진로설계에 따른 부담	남한에서는 자신의 선택과 결정이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며, 대학 유형, 전공, 복수전공 등 다양한 선택을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보 부족과 선택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경험함.
	북한배경 학생에 대한 학교의 이해와 지원 부족	북한과 남한의 학교문화 및 제도 차이에 대한 학교와 교사의 이해가 부족하고, 북한배경 학생의 적응 과정에서 필요한 안내와 지원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어려움을 경험함.
현실적 조건에 기반한 학업 및 진로 전략	학업·언어·문화적 격차 해소를 위한 적극적 노력	남한 학생들과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검정고시를 통한 학년 조정, 외래어와 줄임말 학습, SNS와 컴퓨터 사용법 습득 등 자신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학습함.
	자신의 상황을 고려한 학교 선택	자신의 학업 수준, 또래관계, 학교생활 적응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일반학교 또는 대안학교를 선택하고, 각 학교가 자신의 사회생활 준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함.
	진로에 필요한 공부의 선택적 학습	모든 영역에서 높은 성취를 추구하기보다 자신의 진로에 실제로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공부를 선택함. 영어, 자격증, 미용기술 등 진로 목표와 현실적 필요에 따라 학습의 우선순위를 조정함.
	경제·사회적 조건을 고려한 진로 계획	자신의 경제적·사회적 조건과 취업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학 진학, 자격증 취득, 직업 선택 등을 계획하고,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며 필요에 따라 기존의 진로 계획을 수정함.

1. 남북한 학교의 교육환경과 학생 성장 지원 방식의 차이 인식

참여자들은 남한과 북한의 학교가 다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인식하였으며 이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무엇을 하도록 요구받는지에 대한 경험 차이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학생의 학습을 지원하는 학교환경 조성 여부에 있어서 남한과 북한 학교 간에 차이가 있음을 체감하였다. 남한은 청소를 해주는 분이 따로 계시고 수도시설이나 급식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으며(참여자 5), 최신식 시설에 컴퓨터가 구비되어 있고(참여자 1, 2, 3), 학생들이 학교에서 중요하게 해야 하는 일은 학업이었다(참여자 2, 4). 반면 북한 학교는 학생들의 돈을 걷어 학교 시설을 수리하였으며(참여자 2), 학생들이 직접 학교를 청소하고 학교 밖에서 직접 물을 길어오거나 점심을 각자 해결해야 하는 등(참여자 5) 학교 시설과 제도의 미비함을 보완하는 데 학생들이 동원되었다.

둘째로 학교에서 지도하는 내용과 방식 또한 상이하였는데, 개인의 자율적인 성장과 사회 정서적 발달에 대한 지원 여부에 있어서 남한과 북한의 차이가 두드러졌다. 북한 학교는 당과 지도자에 대한 애국심, 충성심과 같이 체제 유지를 위한 교육이 중심이 되었으며(참여자 2) 이는 개인의 학습과 성장에 주목하고 이를 지원하는 남한 학교의 역할과 대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은 학생에 대한 체벌이 금지되어 있고 사회 정서적 발달의 측면에서 학생 간 갈등 조정에 교사가 개입하여 지도하지만, 북한에서는 학생에 대한 교사의 체벌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며 교사가 학생 개인 간 갈등을 지도하지 않는 등(참여자 4) 개인의 내적 체험이나 정서·사회적 측면에 대한 지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참여자들은 학교 문화 측면에서 창의성과 다양성 허용 여부에서도 차이를 체감하였다. 창의적인 표현이나 개인의 의사 개진이 허용되는 남한 학교와 달리 북한 학교는 획일적인 문화였으며 학생들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였다(참여자 2). 예술 분야에서도 전형적인 표현 방식이 정해져 있었으며 다루는 주제 또한 당과 지도자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북한 학교에서는 학교 청소를 할 때에도 성별에 따라 역할을 다르게 부여하였고(참여자 5), 복장에 관해서도 남한에 비해 규제가 엄격하여(참여자 2) 자율성과 창의성이 제한되고 있었다.

“저희 수업이 1시에 끝나서 집에 가서 (점심을) 먹었어요. 저희 집은 7분 거리였고, 제일 멀리 있는 친구 집이 20분 거리였어요. 도시락 싸는 것들이 귀찮으니까 요즘에는 돈이 있는 친구들은 장마당에서 그냥 먹고 다시 학교 가거든요. … 좋은 학교, 평양대학교라던가 그런 데는 수도가 있는데 저희 학교 등에는 수도가 없었어요. 일반적으로는 다 없었어요. … 그러니까 동네에 있는 내천에 가서 물을 길어서 사용하죠.”(참 5)

“애국심을 느껴야 되고, 충성심을 느껴야 되고, 효를 해야 되고, 뭐 엄청 많이 배워요. 근데 그게 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지를 위해서고 하니까, 허 어이 없네 진짜. … 노래 같은 것도 보면은 되게 정해져 있어요. 노래가 엄청 많지만 하나로 묶어보면 그냥 다 한 가지예요. 누군가를 뒤향 김정은 장군님 멋지고 어찌고 저찌고 찬양하는 노래. … 근데 여기 학교는 훨씬 더 좀 자유롭달까? … 북한은 아니에요. 이 중에서, 이 중에 답이 하나 있는 거예요. … 북한에서 여기 와서 놀라운 게, 여긴 ‘답이 없습니다’ 해가지구, ‘아 여긴 답이 없을 수도 있구나’ 해가지구 살짝 저는 뭔가 시야가 넓어졌다고 해야되나? 그런 걸 좀 많이 느꼈어요”(참 2)

2. 사회진입을 위한 남한 학교의 기능 인식

연구에 참여한 북한배경 청소년들은 입남 이후 북한과는 다른 남한 학교의 사회적 효용을 자각하였다. 우선 남한의 학교는 계층 상향 이동의 사다리라는 점을 학습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남한에서는 계층 이동의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인식하며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고 안정적인 직업을 얻는 데 유리한 대학에 진학하는 방식으로 계층 상향 이동을 위해 노력하였다.

둘째, 참여자들에게 남한 학교란 남한 사회의 문화적 규범을 학습하는 사회화 공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다시 말해 학교란 남한 사회를 미리 접해보고 적응을 연습할 수 있는 장이었다. 남한이라는 낯선 사회에 새롭게 적응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학교를 ‘작은 사회’로 생각하며(참여자 4) 장기적인 관점에서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방법을 배우고 연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하였다(참여자 2, 3, 4).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생계 유지 수단으로서의 대학교육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남한에서 대학교는 취업과 안정적인 생계를 위해 사회적으로 중요한 자원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남한은 ‘공부가 만땅’인 곳으로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우선 공부를 잘해야 하고(참여자 2), 지금 당장 목표하는 진로가 없다 하더라도 우선 대학교에 진학해서 뭐라도 배워야 취직을 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으며(참여자 4), 취직을 위해 대학 진학을 선택하였다(참여자 1, 2, 3, 4).

“북한은 엄청 토대 가지고 그러거든요. 집안 토대가 안 좋으면 (공부를 잘해도)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거기에서는. … 일단 북한 시스템이 그래요. 여기(남한)는 노력을 하면 그래도 되잖아요. 북한은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 100을 노력하면 50 정도는 되어 있잖아요. 근데 북한은 100을 노력해도 0이에요. 그러니까 노력할 만한 곳 자체가 없어요.” (참 1)

“저는 북한 친구들이 한국까지 왔는데 일반 학교를 가는 이유가 한국 친구들과 더 어울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굳이 여기까지 와서 북한 사람들과 어울리기가 싫어서 일반 학교를 간 거거든요. 사회에 나가서도 북한 사람 있는 무리에만 있을 건 아니잖아요. 사회 나가면 한국 사람들과 생활을 해야 하는데… 취업이 너무 어렵다 해가지고, ‘내가 과연 취직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유아교육학과를 가면 100% 취직을 할 수 있어서 (대학을) 선택하게 된 거데… 그리고 대학 졸업하면 자격증도 있거든요. ‘제가 어디를 취업하든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참 3)

“대학교를 선택한 이유는… 그래도 배워야지. 아는 게 있어야 나중에 뭐라도 할 거잖아요.” (참 4)

3. 남북한 학교문화와 교육방식의 차이로 인한 적응 어려움

남한과 북한 학교의 역할과 기능 차이로 인해 참여자들은 학창 시절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그중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점은 첫째, 입시 위주 교육 환경으로 인한 학업 스트레스였다. 북한에서는 학업이 중요하지 않았으며 대학교에 진학하는 경우가 드물었으나, 남한에서는 배우는 교과목이 다르고(참여자 3), 남한 출신 학생들과 학업 격차로 인해 일반 학교에서의 수업을 따라가기 버거워하였다(참여자 2, 3, 5).

둘째, 남한과 북한 학교에서 학습활동에서의 규범적 요구가 달라 적응상 혼란을 경험하였다. 학교 폭력 제도나 교사가 학생들 간의 다툼을 중재하고 지도하는 것을 통제로 여기고 불편하다고 느끼거나(참여자 4), 컴퓨터를 활용하는 수업 방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참여자 1, 2, 3, 5).

셋째, 자율적 선택과 자기주도적 진로 계획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남한 사회에서는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해야 할 일이 많으며 현재의 선택이 앞으로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며(참여자 1), 북한과 달리 스스로 모든 걸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며(참여자 4), 2년제 대학을 갈지 4년제 대학을 갈지(참여자 1), 복수전공을 해야할지 말아야 할지(참여자 3) 등을 고민하며 진로 의사결정의 중요성과 그로 인한 부담감을 호소하였다.

넷째, 북한배경 학생에 대한 학교 내 지원과 이해 부족으로 인해 적응상 어려움을 겪었다고 보고하였다. 북한과 남한의 학교 제도의 차이나, 북한배경 학생들이 남한 학교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해 교사가 잘 알지 못하며, 이에 대한 학교 차원의 지원이나 담임교사의 도움이 부족하였다(참여자 2, 3, 5).

“솔직히 아, 어떤 때는 나는 사는 게 공부를 위해서 사는 건가, 살기 위해 공부를 배우는 건가,

솔직히 헛갈려요. ... 뭐 해도 공부, 이거 해도 공부, 저거 해도 공부. 공부 잘 해야. 나는 살기 위해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위해 살아가는 인간. 아, 나란 인간은 왜 사는 거야, 뭐 이런 생각. 사람들이 뭐 물어볼 때도 ‘아, 너 공부 잘해?’ ‘너 잘 지냈어?’ 이런 말 보다 ‘너 공부 잘해?’ 이런 거 물어보고.” (참 2)

“한국에 오면 뭔가 다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뭔가 더 통제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 한국은 너무 법으로만 해결하려고 하고, 뭘 해도 벌금이고 해서 조금 불편하긴 해요. 애들끼리 조금은 싸울 수 있는데 그것도 학폭(학교 폭력)으로 여기니깐. (연: 고향에서는 싸워도 괜찮아?) 네, 그냥 선생님이 너희 둘이 알아서 하라고 해요.” (참 4)

“대학교를 선택 안 하면, 나가서 일 하면, 시간이 지났을 때 그때 가서 대학교를 가면, 나이도 더 먹고 더 늦어지고. 그래서 1년 뒤에는 막 선택장애가 온 거예요.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몰라서 어떤 걸 선택해야 하나, 후회를 안 할까, 이런 거요. ... 막 한국에 와서 첫발을 내딛는 거고 지금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10년이 결정되고 이러잖아요.” (참 1)

“가자마자 담임 선생님께서 어디에서 왔다는 거 밝혔습니다. ... 그렇게 공개했으면 조금이라도 책임을 좀 저주지 그래서 조금 원망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고향은 집에 가서 밥을 먹었어요. 하지만 남한에서는 급식실이 있다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급식을 어디에서 먹어야 되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담임 선생님 조금이라도 관심을 보여줬다면 조금이라도 덜 힘들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참 5)

4. 현실적 조건에 기반한 학업 및 진로 전략

학업 및 진로 분야에 있어서는 자신의 상황에 대한 현실적인 판단에 기반하여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해가는 모습이 두드러졌다. 우선 북한배경 청소년들은 남한배경 학생들과 출발점이 다르다고 인정하며 학습·언어·문화 등에서 차이를 경험하며 남한 학생들과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하였다. 검정고시를 따서 나이에 맞는 고등학교에 진학하거나(참여자 3), 북한과 다른 남한의 줄임말이나 외래어를 익히고(참여자 2, 5), 또래 친구들이 주로 사용하는 SNS를 익히면서(참여자 1, 3, 5) 간극을 좁히고자 노력하였다.

다음으로 자신의 특성과 학교 적응 가능성에 대한 숙고를 바탕으로 일반학교 또는 대안학교를 전

략적으로 선택하는 전략이 두드러졌다. 남한 학생들과 어울리며 빠르게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일반 학교를 선택하였고(참여자 2, 3), 학업 격차나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교육을 받으며 점차 남한 생활에 적응하는 편이 유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안학교에 진학하였다(참여자 4).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하였는지는 참여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나 자신의 특성이나 학업 수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남한 사회 적응에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의사결정하였다는 점은 공통적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참여자들은 한국의 현실을 고려하여 필요한 공부는 해야 한다고 받아들여, 모든 영역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을 목표로 삼기보다는 실리를 기준으로 필요한 공부를 취사선택하였다. 취업을 위해 한국사 자격 시험 공부를 하며 ‘스펙’을 쌓거나(참여자 3), 해외 유학과 취직을 위해 한식 자격증을 준비하고(참여자 1), 학원에 다니며 미용 기술을 배우는 등(참여자 4) 미래의 목표를 위해 필요한 공부가 무엇인지 선택하고 전념하였다. 특히 영어 공부에 있어서 전략적 선택이 두드러졌는데, 취업에 필요하다고 생각해 영어를 공부하는가 하면(참여자 1, 3) 영어는 공부를 해도 성적이 잘 오르지 않고 취업에 꼭 필요하지 않거나 영어권 국가에서 살 계획이 없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중단하기도 하였다(참여자 2, 4).

마지막으로 참여자들은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진로 계획을 수립하였다. 요리(참여자 1), 패션(참여자 2), 미용(참여자 4), 유아교육(참여자 3) 등 본인이 선택한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였으며, ‘준비하기 쉽고 노력하면 나도 할 수 있는’ 한식 자격증을 준비하거나(참여자 1) 대학에 다니며 경제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참여자 2), 최근 취업 동향을 고려하여 다른 취직처를 모색하기도 하는 등(참여자 3) 자신의 경제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하며 계획을 세우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해외 유학 가면 3개 국적의 자격을 딸 수 있데요. 해외 3년만 일하면요. 이름 있는 학교요. 그리고 한국에 오면 다 찾아준대요. 일단 해외 경험이 있으면요. 그니까 10년 할 거 6년 만에 주 방장 될 수 있다고 해요. … 애들이 한식이 쉽대요. 한식 자격증 있는 애들 많아요. 자격증이 서너 개 있는 애들 많아요. 제가 노력하면 할 수 있어요. … 영어 잘하면 해외 유학도 갈 수 있어요. 학교에서 보내줘요. 해외 취직 할 수도 있어요. 스위스, 중국, 호주 다양해요. 다 갈 수 있어요. … 영어를 배워야 해요. 지금 영어 왕초보예요. 일단 영어 배울 거예요.” (참 1)

“일반 학교 간 이유가 대안학교에는 중국에서도 오고 북한에서도 온 애들이 있어가지구 뭔가,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한국 사람들보다 잘, 알긴 알겠지만 뭔가 잘 알지 못할 것 같고. 분위기가

있잖아요. 좀 뭐지? 한국 생활 적응하는데 일반 학교가 더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저는 왔어요.”
(참 2)

“지금 살짝 후회하긴 해요. 현실적으로 저는 유아교육학과를 가고 보니 조금, 좀 불안정한 직업 이더라고요. 사실 엄청 안정적이라고 생각해서 선택했는데 되게 일 하는 거에 비해서 월급도 작고 임용고시를 안 보면 사립유치원에 갈 수 있어서 너무 불안정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데 취직하려고 하긴 하는데. 그리고 다음 해 휴학할 거거든요. 박봉이에요.” (참 3)

“지금은 대안학교에 온걸 잘했다고 생각해요. ... 일반 학교에 가면 애들이 많이 힘들어 하고, 애들이랑 어울리지 못하고 힘들어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학교는 우리 수준에 맞춰줘서 훨씬 나아요...영어는 잘 안 해요. 제가 뷰티학과를 선정해서 영어는 그리 많이 안 쓸 것 같아서요. ... 헤어 배워요. 어릴 때부터 헤어를 좋아해서 지금 학원을 다니며 배우고 있어요. 이제는 컷이랑 할 수 있어요. 조금 힘들긴 한데 재미있어요.” (참 4)

“친구들이 너랑 나 소통하려면 페이스북하자 이러는데 페이스북이라는 것을 몰라서 그것들을 물어보고 어디에서 다운받지는 물어보고 진짜 힘들었던 것 같아요. ... 제가 모르는 단어들을 적고 다녔어요. 볼펜을 저희는 원주필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남한은 볼펜이라고 쓰고, 북한은 원주필이라고 하네 이렇게 단어장 만들어서 외웠는데요, ‘페이스북’ 같은 단어는 북한에는 없어서 그런 단어들은 진짜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참 5)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북한배경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고, 이를 통문화론과 기독교 인간학의 관점에서 해석함으로써 남북한 교육문화와 사회적 경험이 이들의 정체성 형성과 사회문화적 적응 과정에 갖는 의미를 규명하고, 북한배경 청소년을 보다 통합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한 학문적·실천적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 총 4개의 상위범주와 14개의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본 장에서는 분석 내용에 관해 통문화론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은 논의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참여자들은 남한 학교생활을 경험하면서 북한에서 형성된 가치와 규범을 비판적으로 성찰

하고 기존 문화와 심리적 거리를 형성하는 부분적 탈문화화(partial desculturación)의 양상을 보였다. 이들은 남한과 북한 학교의 차이를 시설과 제도, 교육 내용과 방식, 학교 문화 등 다양한 차원에서 인식하고 있었다. 청소 인력의 유무, 급식 제공 여부, 최신 교육 기자재와 같은 학교 환경의 차이는 오주리와 이수연(2010)이 지적한 것처럼 남북한의 경제적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지만,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이를 국가가 개인에게 요구하는 역할과 가치관을 반영하는 사회문화적 지표로 이해하고 있었다.

특히 학생을 강제로 동원하거나 수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학생을 공개적으로 지적하는 관행, 교사의 체벌을 학생 통제의 정당한 수단으로 받아들이는 문화 등에 대해 참여자들은 한만길 외(2012)의 연구와 유사하게 학교가 학생 개인의 성장보다 체제 유지와 순응을 강조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다고 인식하였으며, 이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나아가 북한에서 내면화한 가치와 규범에 대해 ‘속았다’고 느끼거나, 남한 사회를 경험하면서 시야가 넓어지고 자유로움을 경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학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가에 대한 충성보다 개인의 성장과 성취를 중요하게 여기며,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등 남한 사회의 가치와 규범을 선택적으로 수용하면서 자신의 행동양식을 조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경험은 기존의 문화적 가치와 규범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새로운 문화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문화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자신에게 의미 있는 요소를 선택하는 부분적 탈문화화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참여자들이 경험한 개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남한 학교와 체제 유지를 우선하는 북한 학교 간의 차이는 Pierre Bourdieu와 Jean-Claude Passeron(1990)이 주장한 바와 같이 학교가 단순한 교육 기관이 아니라 사회의 가치와 문화를 재생산하는 장이라는 관점과도 맥을 같이한다. 참여자들은 상이한 학교생활 경험을 통해 사회마다 학생에게 기대하는 가치와 규범, 행동양식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남북한 사회의 문화적 특성을 이해해 나갔다. 특히 북한 문화와 일정한 심리적 거리를 형성하면서도 남북한 학교문화를 우열이나 발전과 미발전이라는 위계적 이항대립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오히려 각 사회가 추구하는 이념과 목적에 따라 학교의 역할과 기능이 달라진다고 이해하였는데, 이는 문화 간 우열을 전제하기보다 상호작용과 변형의 과정을 강조한 Fernando Ortiz(1983)의 통문화론과도 부합하는 결과이다.

한편 이러한 부분적 탈문화화는 기독교 인간학의 관점에서 인간의 존엄성(dignity)과 주체성을 새롭게 인식해 가는 과정으로 재해석할 수 있다. 참여자들은 남한 사회를 경험하면서 새로운 가치 체계를 단순히 수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이 경험해 온 삶과 가치, 규범을 비교하고 성찰하면서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과 거리를 둘 것인지 스스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선택과 판단은 인간을 주어진 사회체제나 문화적 환경에 의해 규정되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의미를 구성

하며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이해하게 한다는 점에서 기독교 인간학적 의미를 갖는다. 특히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을 지닌 인간은 사회적 지위나 성취, 소속된 체제와 관계없이 고유한 존엄성을 지닌 존재라는 관점에서 볼 때, 참여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개인의 성장과 성취를 중요하게 여기며 자신의 삶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한 경험은 단순한 남한 사회 적응의 결과로만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통문화론은 참여자들이 남북한의 상이한 학교문화를 경험하면서 기존의 가치와 규범을 성찰하고, 새로운 문화와의 접촉 속에서 자신의 가치와 행동양식을 선택적으로 재구성해 가는 과정, 즉 문화적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는 분석틀로 기능한다. 이에 비해 기독교 인간학은 이러한 문화적 변화의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선택하며 자신의 목소리를 형성해 가는 경험이 인간의 존엄성과 주체성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해석하는 관점을 제공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참여자들의 부분적 탈문화화는 기존 문화를 단순히 벗어나는 과정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의 삶을 재구성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주체성을 새롭게 인식해 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참여자들은 남한 학교생활을 통해 남한 사회의 가치와 규범, 학교와 교육의 의미를 새롭게 이해하고 이를 자신의 삶과 연결해 가는 신문문화화(neoculturación)의 과정을 경험하였다. 북한은 출신 성분에 따라 대학 진학과 직업 선택이 제한되는 사회 구조로 인해 계층 이동의 가능성이 사실상 차단되어 있었으며(한동호 외, 2018), 학업 성취나 대학 진학이 진로나 사회적 자원 획득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매우 제한적이었다. 또한 사회 규범과 가치체계가 국가에 의해 일방적으로 제시되는 환경에서는 학교를 통해 새로운 사회적 규범을 학습할 필요성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의 사회적 기능 역시 제한적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그러나 남한 사회로 이주한 이후 참여자들은 학교 교육과 또래 및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경쟁, 자본주의, 능력주의로 대표되는 남한 사회의 가치와 규범을 점차 이해하기 시작하였다(채경희, 2017). 이들은 경제적 안정과 직업적 성취를 위해서는 개인의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며, 학교 교육과 대학 진학이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고 취업과 안정적인 삶을 위한 핵심 경로라는 점을 학습하였다(김보미·이정민, 2024). 특히 청소년기에 입국한 참여자들에게 고등학교는 하나원 퇴소 이후 처음 경험하는 제도적 공동체로서(양영자, 2023), 학업을 수행하는 공간을 넘어 남한 사회의 문화를 배우고 또래와 관계를 형성하며 사회 적응을 연습하는 장으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다. 이는 북한에서 경험했던 학교의 기능과는 질적으로 다른 의미체계를 형성하는 과정이었다.

또한 북한배경 청소년들은 북한에서 형성한 사회·경제적 자본이 단절된 상태에서 남한 사회에 적응해야 했기 때문에(염유식·김여진, 2011), 학교생활을 통해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미래를 준

비하는 것을 남한 사회 정착의 중요한 기반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학교는 더 이상 단순히 교육을 받는 공간이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모색하는 공간으로 재해석되었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학교교육, 대학 진학, 직업 선택 및 사회적 관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새롭게 이해하였으며, 자신이 어떠한 교육과 진로를 선택하는지가 이후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문화적 인지체계에 새로운 문화적 의미와 규범이 유입되고, 이를 자신의 경험과 연결하여 새로운 의미체계로 재구성해 가는 신문문화화의 구체적인 양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통문화론의 관점에서 참여자들의 학교생활은 남한 사회의 가치와 규범을 단순히 전달받는 과정이 아니라, 학교라는 일상적 공간에서 새로운 문화적 의미를 경험하고 학습하며 자신의 삶에 적용해 가는 문화적 변화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신문문화화의 과정은 기독교 인간학의 관점에서는 참여자들이 자신의 삶의 방향과 가능성을 새롭게 인식해 가는 과정으로 재해석할 수 있다. 기독교 인간학에서 인간은 주어진 환경에 수동적으로 적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삶에 주어진 가능성과 은사를 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삶의 방향을 모색하는 존재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참여자들이 학교교육과 대학 진학, 직업 선택을 자신의 미래와 연결하여 생각하기 시작한 것은 단순히 남한 사회의 경쟁적 가치나 능력주의를 내면화한 결과로만 해석하기 어렵다. 오히려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은지, 자신의 능력과 가능성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탐색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자신의 소명(vocation)을 발견하고 준비해 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통문화론의 관점에서 참여자들의 신문문화화는 남한 사회의 새로운 규범과 가치, 학교와 교육의 의미를 경험하고 이를 자신의 삶과 연결하여 새로운 문화적 의미체계를 형성해 가는 ‘문화적 변화의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반면 기독교 인간학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참여자들에게 자신의 가능성과 삶의 방향을 성찰하고 미래를 능동적으로 선택해 가는 ‘인간적 성장의 과정’이라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참여자들이 남한 학교생활을 통해 학교의 의미와 교육의 가치를 새롭게 이해하고 자신의 미래를 설계해 가는 경험은 신문문화화라는 문화적 변화인 동시에, 자신의 삶에 주어진 가능성을 발견하고 소명을 탐색해 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참여자들은 남북한의 상이한 학습 방식과 교육제도, 진로지원 체계 및 관계문화의 차이로 인해 혼란과 부조화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오르피스가 통문화론에서 설명한 서로 다른 문화적 요소 간의 접촉과 상호작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긴장과 조정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북한 학교문화와 상충하는 입시 중심의 교육환경, 낮은 학교제도와 수업 운영 방식, 진로 선택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교육문화는 참여자들에게 심리적 부담과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게 하였다. 김애진과 정원철(2011), 박영숙(2018), 백인옥(2020) 등의 연구에서는 북한배경 청소년의 학교 적응 어려

움을 학업 결손이나 학습 방식의 차이에서 설명하였으나, 본 연구는 이러한 어려움이 단순한 학습 격차를 넘어 북한에서 내면화한 문화적 가치와 남한 학교가 요구하는 규범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참여자들은 학업 자체보다 성적 중심의 경쟁 문화와 성취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분위기에 위화감을 느꼈으며, 자신의 가치관과 삶의 방향에 대해 깊은 고민을 경험하였다. 또한 북한에서는 주어진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중요한 덕목이었다면, 남한에서는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탐색하고 진로를 계획하며 자신의 미래를 능동적으로 개척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 속에서 상당한 부담감을 경험하였다(김윤애, 2015). 이러한 경험은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는 과정에서 기존의 가치와 새로운 규범이 긴장하고, 개인이 그 사이에서 자신의 삶의 방식을 조정해 가는 통문화적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북한배경 청소년에 대한 학교의 이해와 지원 부족은 이러한 문화적 긴장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신미영과 김병수(2014)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특히 참여자들은 담임교사로부터 충분한 안내나 지원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이를 문제로 인식하기보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다. 일부 참여자는 자신의 동의 없이 북한 출신이라는 사실이 학급에 공개되었음에도 이를 특별한 문제로 여기지 않았으며, 교사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개별적인 배려를 기대하지 않았다. 이러한 태도는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제한적이었던 북한의 학교문화에서 형성된 경험이 새로운 교육환경에서도 지속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조영아와 전우택(2004)의 연구와도 맥을 같이한다. 따라서 참여자들이 학교나 교사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기대하지 않은 이유는 개인의 소극적인 성향 때문이라기보다, 서로 다른 교육문화가 접촉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관계 경험과 새로운 학교문화 사이에 형성된 문화적 반응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통문화론의 관점에서 볼 때 이들의 학교 적응의 어려움은 개인이 새로운 문화에 일방적으로 적응하지 못한 결과가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적 경험과 관계방식이 학교라는 공간에서 만나면서 발생한 긴장과 조정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적 긴장은 기독교 인간학의 관점에서는 인간이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의미를 형성해 가는 존재라는 점에서 새롭게 해석할 수 있다. 참여자들이 학교와 교사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하지 않았던 모습은 단순히 개인의 적응 방식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전의 문화적 경험 속에서 형성된 관계에 대한 기대와 새로운 학교환경에서 요구되는 관계방식 사이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인간을 관계적 존재(relational being)로 이해하는 기독교 인간학의 관점에서 볼 때, 교육에서의 관계는 단순히 학업 정보를 제공하거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기능적 관계에 머무르지 않는다. 교사와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존재가 인정받고, 자신의 경험을 표현하며, 타인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계는 인간의

성장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북한배경 청소년의 학교 적응은 개인에게 새로운 학습방식과 진로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서로 다른 문화적 경험을 가진 학생이 자신의 경험을 안전하게 표현하고 타인과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관계적 환경을 마련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참여자들이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특별한 배려를 기대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지원의 부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방식 자체가 문화적 경험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에서 학교 공동체가 북한배경 청소년을 단순한 지원의 대상으로 바라보다 각자의 경험과 문화적 배경을 지닌 관계적 존재로 이해하고 환대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는 교육이 개인의 학업 성취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인간의 관계성을 회복하고 공동체성을 형성해 가는 과정이라는 기독교교육의 관점과도 연결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통문화론적 분석은 참여자들이 서로 다른 교육문화와 관계방식을 경험하면서 기존의 가치와 관계에 대한 인식을 성찰하고 새로운 환경에 맞게 조정해 가는 과정을 설명한다. 반면 기독교 인간학은 이러한 문화적 긴장과 조정의 경험을 인간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와 삶의 의미를 형성해 가는 과정으로 재해석한다. 즉, 통문화론이 참여자들의 학교생활에서 나타난 문화적 변화의 양상과 과정을 설명한다면, 기독교 인간학은 그 변화가 참여자들의 존엄성, 관계성 및 삶의 성장에 갖는 의미를 해석하는 관점을 제공한다. 따라서 참여자들의 학교 적응에서 나타난 혼란과 부조화는 단순히 극복해야 할 개인적 어려움이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화적 경험인 동시에 신뢰와 환대를 통해 새로운 관계와 공동체를 형성해 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넷째, 참여자들은 남한 사회의 가치와 제도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기보다 자신의 경험과 자원, 현실적 조건 및 필요를 고려하여 필요한 요소를 선택하고 재구성하는 통문화화(transculturación)의 모습을 보였다. 참여자들은 자신이 북한이라는 폐쇄적인 사회체제에서 성장하여 남한 학생들에 비해 불리한 출발선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남한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문화적 간극을 좁히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남한 사회의 제도와 규범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기보다 자신의 자원과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요소를 선택하고 상황에 맞게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예를 들어 학습 결손이 크고 일반학교 적응이 어렵다고 판단한 참여자는 대안학교 진학을 선택하였으며, 전 교과목을 고르게 학습하기보다 진로와 관련된 과목에 집중하거나 취업에 필요한 기술 습득과 자격증 취득을 위해 별도의 교육과정을 선택하였다. 또한 신조어나 줄임말, SNS 활용 방식 역시 지배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무조건 따르기보다 또래관계 형성과 정보 접근에 도움이 된다는 실질적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용

하였다. 이처럼 참여자들은 남한 사회의 가치와 규범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자원, 현실적 필요에 비추어 재해석하고 필요한 요소를 선택적으로 수용하였다. 이는 통문화론에서 말하는 문화 간 접촉을 통한 변형과 재구성의 과정으로, 참여자들이 서로 다른 문화적 요소를 자신의 삶의 맥락에 맞게 조합하고 새로운 행동양식을 만들어 가는 통문화적 실천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참여자들이 입시 경쟁과 성적 중심 문화에 부담을 느끼면서도 학업 성취와 학력이 남한 사회에서 중요한 사회적 자본으로 기능한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북한배경 청소년이 남한의 자본주의를 비판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사회적 성공을 위해 필요한 요소는 선택적으로 수용하였다는 이한나와 정동인(2010)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Berry(1997)의 문화적응이론 역시 개인이 사회의 가치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더라도 사회적 생존과 실용성을 고려하여 행동 차원의 적응 전략을 선택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따라서 참여자들의 선택은 단순한 동화나 순응이라기보다 제한된 사회적 자원 속에서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설계하고 새로운 문화적 환경에 주체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통문화론의 관점에서 이들의 학업과 진로 선택은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서로 다른 문화적 경험과 현재의 환경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에 적합한 방식으로 문화적 자원을 재구성해 가는 과정이다.

이러한 문화적 선택과 재구성의 과정은 기독교 인간학의 관점에서 자신의 삶에 주어진 조건과 자원을 책임 있게 활용하며 미래를 설계해 가는 청지기적 삶(stewardship)의 실천으로 이해할 수 있다. 참여자들은 남한 사회의 가치체계를 그대로 수용하거나 모방하기보다 자신이 처한 환경과 삶의 경험, 그리고 자신의 가능성을 바탕으로 삶의 방향을 주체적으로 재구성하였다.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교육적·사회적 자원을 활용하여 학업과 진로를 계획하고, 현재의 조건을 넘어 미래를 준비해 나갔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맡기신 삶과 은사를 성실하게 관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가능성을 책임 있게 발휘하며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해 가는 청지기적 삶의 모습과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학교는 북한배경 청소년들이 자신의 경험과 잠재력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주어진 환경과 자원을 책임 있게 활용하며 미래를 스스로 설계하는 삶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부분적 탈문화화, 신문문화화, 문화적 긴장과 조정 및 통문화화는 모든 참여자가 일정한 순서에 따라 경험한 선형적 단계라기보다, 남북한의 상이한 교육문화가 접촉하고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상호 중첩되어 나타나는 통문화적 변화의 양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북한배경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경험은 남한 사회에 일방적으로 동화되

는 과정이 아니라, 남북한의 상이한 교육문화가 학교라는 일상적 공간에서 접촉하고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기존의 가치와 규범을 성찰하고, 새로운 문화적 요소를 선택적으로 수용하며, 자신의 상황에 맞게 조정·재구성하는 통문화화의 과정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문화적 긴장과 혼란을 경험하면서도 이를 학업과 관계, 진로 및 삶의 방향을 새롭게 구성하는 계기로 활용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통문화론을 통해 이러한 문화적 변화의 과정과 양상을 설명하고, 기독교 인간학을 통해 그 과정에 참여하는 북한배경 청소년을 존엄성과 주체성, 관계성, 소명 및 청지기성을 지닌 인간으로 해석하였다. 이는 북한배경 청소년을 남한 사회에 적응해야 하는 수동적 대상으로 보기보다, 서로 다른 문화적 경험을 성찰하고 선택하며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재구성하는 주체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소수의 북한배경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질적 사례연구이므로 연구 결과를 북한배경 청소년 전체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연구참여자 5명이 모두 북한의 혜산 출신이라는 지역적 동질성을 지니고 있어 특정 지역의 교육환경과 문화적 경험이 연구결과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참여자들의 입남 경로와 시기, 남한 정착 기간 등이 서로 달랐음에도 이러한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북한배경 청소년의 경험은 북한에서의 사회경제적 배경, 탈북 동기의 자발성, 제3국 체류 경험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달라질 수 있으며(채정민, 2016), 신윤정 외(2022) 역시 출생 국가와 가족 형태 등 집단 내부의 이질성을 고려한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출신 지역, 입남 경로와 시기, 출생 국가, 가족 형태, 정착 기간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참여자를 다양화하고, 집단별 학교생활 경험과 문화적 적응의 차이를 심층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일반학교와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참여자를 함께 분석하였기 때문에 학교 유형에 따른 학교생활 경험과 적응 과정의 차이를 체계적으로 비교하지 못하였다. 신미영과 김병수(2014)는 학교 유형에 따라 북한배경 청소년의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상이함을 보고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일반학교와 대안학교를 구분하여 학교생활 경험, 문화적 적응 및 진로 형성 과정의 차이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학교 유형에 따른 보다 구체적인 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고등학교 시기의 학교생활 경험을 중심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입남 연령과 발달단계에 따른 문화적 적응 및 정체성 형성의 차이를 충분히 살펴보지 못하였다. 북한배경 청소년은 입남 시기와 연령에 따라 새로운 교육환경을 경험하고 문화적 의미를 수용·재구성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입남 연령과 발달단계를 고려한 비교연구를 통해 문화 수용 과정, 정체성 형성 및 학교생활 경험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기독교 인간학을 해석의 관점으로 활용하였으나, 연구참여자의 신앙 경험이나

종교공동체 참여 자체를 주요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신앙 경험과 종교공동체 참여가 북한배경 청소년의 심리적 안정감, 자아존중감, 관계 형성, 미래 전망 및 문화적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검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신앙 경험과 종교공동체의 역할을 독립적인 연구주제로 탐색하여 북한배경 청소년의 회복과 성장, 관계 형성 및 소명 발견을 지원하는 기독교교육과 기독교상담의 이론적·실천적 기반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본 연구는 통문화론과 기독교 인간학을 연계하여 북한배경 청소년의 학교생활 경험을 분석하고 해석하고자 한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두 이론의 결합을 경험적으로 검증한 선행연구가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두 관점의 결합이 북한배경 청소년의 학교생활 경험을 설명하는 데 어떠한 이론적 설명력과 유용성을 갖는지는 후속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향후에는 다양한 연구대상과 맥락에 두 관점을 적용하여 이론적 연계의 가능성과 설명력을 확장하고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북한배경 청소년의 학교생활을 단순한 사회·교육적 적응의 문제로 접근하던 기존 연구의 관점을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기존 연구가 학업 결손, 학교 부적응, 문화적 차이 및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에 주로 주목하였다면, 본 연구는 남북한의 상이한 문화와 교육경험이 만나는 학교라는 일상적 공간에서 북한배경 청소년들이 기존의 경험을 성찰하고 새로운 문화적 의미를 선택적으로 수용하며 자신의 삶과 진로를 능동적으로 재구성해 가는 과정을 조명하였다. 특히 통문화론을 통해 이러한 경험을 단순한 동화나 적응이 아닌 선택과 변형, 재구성의 과정으로 분석하고, 기독교 인간학의 관점에서 이러한 과정을 존엄성과 관계성, 소명과 청지기성의 관점에서 해석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이는 북한배경 청소년을 지원과 보호의 대상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자원을 바탕으로 삶의 방향을 선택하고 미래를 만들어 가는 주체로 이해하는 관점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학문적·실천적 의의를 갖는다.

마지막으로 향후 기독교교육과 기독교상담은 문화적 적응을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하나님과 자신, 이웃 및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샬롬(shalom)을 이루며 전인적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교육적·상담적 실천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실천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배경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진로교육과 진로상담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참여자들은 하나원에서 제공되는 진로교육이 남한 사회의 현실과 괴리가 있었으며,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식의 추상적 격려보다 현실적인 정보가 더욱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신윤정 외(2022)는 북한배경 청소년이 경험하는 진로장벽을 고려한 성장지향적 진로상담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직업별 자격요건, 준비 과정, 요구 역량 및 경제적 현실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진로 정보를 제공하고, 자신의 강점과 자원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

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더불어 기독교적 관점에서 진로는 단순한 생계유지를 위한 직업 선택을 넘어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부여하신 은사와 가능성을 발견하고 공동체를 섬기는 소명(vocation)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북한배경 청소년들이 자신의 재능과 강점, 삶의 의미를 탐색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엄한 존재로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인적 진로상담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학교와 교사를 대상으로 북한배경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교육과 연수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강인애와 김현미(2014)는 문화다양성 교사 연수가 교사의 문화 감수성과 교육 실천 의지를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으며, 연보라와 김경근(2017)은 교사의 지지가 북한배경 청소년의 학교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또한 신윤정 외(2021)는 북한배경 청소년 지원을 위한 교사 연수와 면담 매뉴얼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교사는 북한배경 청소년을 단순히 ‘적응이 필요한 학생’으로 이해하기보다 서로 다른 문화적 경험과 삶의 서사를 지닌 존재로 존중할 필요가 있다. 교육은 지식 전달을 넘어 학생의 삶을 이해하고 관계를 형성하며 함께 성장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따라서 학교는 북한배경 청소년들이 차별과 낙인이 아니라 존중과 수용을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며, 교사와 또래 학생 모두의 상호문화적 감수성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과 공동체 활동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교회와 기독교 교육공동체 역시 북한배경 청소년의 문화적 적응과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중요한 협력 주체가 될 필요가 있다. 북한배경 청소년들은 새로운 문화와 교육환경 속에서 심리적 불안과 관계 형성의 어려움,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는 단순히 종교활동을 제공하는 공간을 넘어 정서적 지지와 소속감을 경험할 수 있는 환대(hospitality)의 공동체가 될 필요가 있다. 특히 멘토링, 학습지원, 진로상담, 신앙교육 및 또래 공동체 활동 등을 통해 북한배경 청소년들이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이해하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회는 이들을 선교나 보호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기보다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존중하며, 학교 및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학교와 교회, 지역사회의 협력은 북한배경 청소년의 사회 적응을 넘어 건강한 정체성 형성과 관계 회복, 그리고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 강인애·김현미 (2014). 초·중등교사 대상 문화다양성 연수프로그램 시범적용 사례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4(2), 253-282.
- 고유환 (2015). 분단 70년 북한연구 경향에 관한 고찰. **통일정책연구**, 24(1), 29-54.
- 권수현 (201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국민의 태도. **한국정치연구**, 20(2), 129-153.
- 김보미·이정민 (2024). 북한이탈 후기청소년의 대학 진학의 의미에 대한 탐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4(16), 851-866.
- 김성경 (2018). 북한이탈 청소년의 긍정적 학교적응 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 막막함에서 자기긍정으로 변화하기. **한국청소년연구**, 29(3), 129-157.
- 김애진·정원철 (2011). 북한이탈청소년의 학교적응 과정에 대한 근거이론 연구: 차이와 차별을 넘어 융화되기. **학교사회복지**, 21, 217-242.
- 김윤애 (2015). **북한이탈주민의 재사회화 과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김하연 (2023). **탈북 청소년과 정신건강**. 2023년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임시총회.
- 남신동 (2022). **학교 환경교육의 방향과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 노은희 (2021). 심리상담 전문가의 탈북배경청소년 상담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박영숙 (2018). 북한이탈청소년의 남한학교생활 적응경험: 포커스그룹 연구방법 적용. **스트레스연구**, 26(3), 149-158.
- 백인옥 (2020). 탈북청소년의 학교 부적응 양상과 해결방안 연구. **통일교육연구**, 17(1), 53-80.
- 신미영·이병수 (2014). 북한이탈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관한 질적 연구: 대안학교와 일반학교 비교를 중심으로. **담론** 201, 17(2), 63-93.
- 신윤정·지은·윤희정·김지선·전주람 (2022). 북한배경 청소년 대상 온라인 생애진로설계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문화와융합**, 44(7), 473-493.
- 신윤정·지은·윤희정·이희재·강유진·전주람 (2021). 북한배경 청소년들의 사회·문화 자본 관련 국내 진로상담연구 동향 및 사회정의옹호상담 적용방안. **상담학연구**, 22(6), 413-456.
- 양계민·이정민·정윤미·엄진섭·장윤선·전경숙 (2022). 2022 **다문화청소년 중단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양영자 (2023). 한 중등교사의 하나원 하나둘학교 북한배경청소년 교육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한국교원교육연구**, 40(2), 325-354.
- 연보라 (2017). **탈북청소년의 사회자본과 학교적응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연보라·김경근 (2017). 탈북청소년의 사회자본과 학교적응 간 구조적 관계. **교육사회학연구**, 27(1), 1-30.

- 염유식·김여진 (2011).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연결망 형성과 유형에 대한 근거 이론 연구. **한국사회학**, 45(2), 85-124.
- 오주리·이수연 (2010). 새터민 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과 대처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상담학연구**, 11(4), 1807-1826.
- 오혜정·손병덕 (2020).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과 학교생활의 관계에서 사회정서와 사회적 지지의 매개 효과. **청소년학연구**, 27(12), 401-429.
- 이수연 (2008). 새터민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관한 질적 분석. **청소년학연구**, 15(1), 81-113.
- 이하나·정동인 (2010). 북한이탈주민의 입국과정 변화에 따른 탈북 청소년의 새로운 적응 양상과 교육적 과제. **학생연구경연대회**, 9, 43-64.
- 장선아·고정훈 (2021).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의 관계: 사회적 지지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1), 662-673.
- 정은미 (2014). 북한주민의 의식주 생활과 사회변동. **亞細亞研究**, 57(4), 142-173.
- 정진아 (2013).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생활문화 기초조사: 서울·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역사문화연구**, 48, 211-254.
- 조영아·전우택 (2004). 북한 출신 대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1), 167-186.
- 조정아 (2008). 북한의 교육일상 연구: 과제와 접근방법. **현대북한연구**, 11(3), 230-271.
- 채경희 (2017).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실태 및 방안.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8(10), 527-535.
- 채정민 (2016). 탈북청소년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의 주요 쟁점과 연구방향.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2(4), 675-693.
- 최지영·박희진·윤보영·한승대·한재현 (2021). **북한 일상생활 공동체의 변화**. 통일연구원.
- 한동호·이금순·도경옥·홍제한·김수경 (2018). **북한인권백서 2018**. 통일연구원.
- 한만길 (2012). 탈북청소년의 교육 실태와 과제. **기독교와 통일**, 6, 67-77.
- 한만길·김형찬·최영표·윤종혁·김정래·이명준·박정현 (2001). **남북 교육공동체 구성을 위한 교육통합 방안 연구: 남북한 평화공존상황을 중심으로**.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통일연구원.
- 통일부 (2026). 북한이탈주민 정착 현황 및 지원 정책. <https://unikorea.go.kr>. (검색일 2026.02.04.)
- Braun, V. & Clarke, V. (2006). Using thematic analysis in psychology.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3(2), 77-101.
- Berry, J. W. & Sam, D. L. (1997).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in Berry, J. W., Segall, M. H. & Kağıtçıbaşı Ç. (Ed.). *Handbook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nd ed., Vol. 3, pp. 291-326). Allyn & Bacon.

Bourdieu, P. & Passeron, J. C. (1990). *Reproduction in education, society and culture* (2nd ed.). SAGE Publications.

Ortiz, F. (1983). *Contrapunteo cubano del tabaco y el azúcar*. Editorial de Ciencias Sociales.

Yin, R. K. (2012).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 (5th ed.). SAGE Publications.

북한배경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통문화론을 중심으로

A Qualitative Case Study of the School Experiences of Adolescents with North Korean Backgrounds: Focusing on Transculturalism

전 주 람 (서울시립대학교)

논문초록

본 연구는 북한배경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경험을 탐색하고, 이러한 경험이 통문화론의 관점에서 남한 사회에 대한 이해와 적응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북한과 남한에서 모두 학교를 경험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북한배경 청소년 5명이었다. 자료는 반구조화된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하였으며, 질적 사례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북한배경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경험은 4개의 상위범주와 14개의 하위범주로 도출되었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의 성장과 발달을 지향하는 교육과 정치체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의 차이를 인식하는 경험, 사회통합과 사회이동의 통로로서 남한 학교의 역할을 이해하는 경험, 남북한 교육 및 진로지도 체계의 차이로 인해 학교 적응 과정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모습, 그리고 현실적인 학업 및 진로 전략을 형성해 가는 과정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이러한 학교생활 경험을 통해 남한 사회의 가치와 규범을 이해하게 되었으며, 기존의 문화적 경험과 새로운 문화적 요소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재구성하였다. 기독교 인간학의 관점에서 이러한 과정은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과 관계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북한배경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경험은 단순한 적응의 과정을 넘어 삶의 의미를 형성하고 정체성을 확립해 가는 여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북한배경 청소년들의 학교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며, 이들을 보다 통합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주제어: 북한배경 청소년, 학교생활 경험, 통문화론, 기독교 인간학, 질적 사례연구